

살롬 엔지니어링(주)

- 철도안전시스템 개발 전문기업 -

지난 86년 설립되고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살롬 엔지니어링(주)(대표 김봉택)은 기관사의 급작스러운 신체마비, 신호오인, 눈·비·안개 등의 환경장애 등에 의해 신호를 무시한 운행을 계속할 시 열차의 안전을 위해 자동적으로 열차를 서행·정지시키는 제어장치인 「ATC/ATS겸용장치」, 기존 열차자동 정지장치(ATC)에 열차사고 방호기능을 추가하여 열차의 탈선사고 이후 다른 후속 운행열차들에게 사전에 경고를 보내 열차의 이중 충돌사고를 방지해주는 「열차무선방호장치」, 하루운행을 끝낸 전동차를 기지의 중앙 컴퓨터 케이블로 연결 주행조 건하에서 기능과 성능을 자동으로 점검을 실행하는 제어시스템인 「열차자동검사장치(ATTS)」 등을 상용화에 성공시키는 등 일반인들에게는 조금은 낯설지만 철도이용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철도안전시스템 개발 전문기업이



- 대표 : 김봉택
- 주소 : 본사-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 잠미C상가 405호
TEL: 551-3801
FAX : 551-3809
- 공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151성남 APT형 공장 마동 603호
TEL:0342-707-3801
FAX:0342-727-3809
- 주요생산품목 : 열차자동정지장치(ATC),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TS/ATC 겸용장치, 철도차량 시뮬레이터, 전동차 단품시험기류 등
- 주요개발품목 : 열차무선방호장치, 선로종합검측장치, 차량위치자동감지시스템 등

한데다 현재 출원된 것만도 30여건에 달하는 등 철도관련 지적재산권만 70여건에 달하고 있다. 전체직원의 30% 이상이 연구개발직 직원으로 매년 매출액의 20~30%를 R&D에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그 외 주요생산제품을 보면, 주행도중 정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기차의 바퀴와 상호마찰로 발생하는 바퀴의 흠, 뜯김, 찌그러짐, 마모 등을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차륜 「찰상검출장치」와 비행기의 모의 시뮬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전동차의 실제운전상황을 재현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일반운전 기술 및 신호에 대한 반응, 브레이크 조작, 고장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관제센터와의 통신 등을 익힐 수 있는 최첨단 고정밀 「모의운전연습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올해부터는 철도사고 및 고장시 현재 CTC(위치측정시스템) 위성을 통해 본부와 GPS수신장치가 부착된 열차를 연결하

다.
국내 최초로 열차 자동정지장치를 국산화하면서 시작된 철도안전시스템 관련 외길사업은 지금까지 10여년간 특히 16건, 실용신안 9건, 의장등록 7건, 프로그램등록 40건을 보유

여 열차위치를 자동측정함은 물론 본부 사령실에서 전국에 운행중인 열차의 이상 유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별명을 가진 살롬엔지니어링(주) 김봉택 사장의 왕성한 신기술개발추진의 이면에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

기업에는 아이디어, 자본, 마케팅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아이디어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주고 국가에서 자금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고정밀 기술개발에 매진

「GPCOM SYSTEM」등이 있다.

또한 남서울 산업대학교와의 산학협동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산학연대와, 독일의 TUV사로부터 ISO 9001인증을 받아 국제적으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 4월 과학의 날에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자체 개발한 철도차량 주행중 차량 진동량 추출을 응용한 「차륜 찰상검출장치」가 98년 5월 과학기술부로부터 (KT) 인증, 9월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기술(KT) 인증을, 10월에는 우수 자본재 제품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철도안전시스템 발명가란

려는 그의 기독교적 직업관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김사장 자신을 포함해 전사원이 독실한 신자일 뿐만 아니라 회사이름도 히브리어로 평화 안경을 뜻하는 살롬이다. 김사장은 “열차 안전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부설연구소를 통해 자체 전략품목을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당시 당시 직원 6명의 손바닥만한 회사에서 출발하여 좌절과 역경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개발과 특허가 곧 국력을 키우는 관건이란 사명감 때문이었다.

김봉택 사장은 특히 「벤처

지원, 개발한 장비를 반드시 구매해 주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사장은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제어장치 분야에서 신용을 쌓기 위해 고정밀의 기술개발과 완벽한 서비스 제공에 힘을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살롬은 향후 한국제일의 철도안전시스템 전문업체로서 경부고속철도의 안전시스템 개발 및 남북통일이 되면 진행될 동북아 중심 지역교통망 구축계획시 안전시스템 개발에 당당히 한몫을 담당하게 될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